

2011.07.18 미래정책연구실

□ 미국, 남서부 지역 가뭄 피해 확산

1. NewYorkTimes(2011.07.11) 주요 내용

- 고온과 가뭄 피해가 플로리다와 에리조나를 포함한 미국의 14개 주로 확산되고 있음.
 - 뉴욕타임즈는 “포장도로처럼 매우 말라버린 토양을 뚫고 나오기에 면화 싹이 너무 약하다”면서 “들판에서는 옥수수가 타들어가며, 가뭄은 악명높은 모랫바람(Dust Bowl)에 필적할 만큼 농사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”고 피해의 심각성을 전함.
- 가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텍사스주이며, 이 지역 주민과 농장주들은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. 또한 남서부 지역에서는 산불로 인해 수백만 에이커의 땅이 타들어가고 있음.
 - 기상학자인 돈 콘리(Don Conlee)는 **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텍사스의 가뭄은 1917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되었다고 언급함.**
 - 텍사스주 농업 관계자에 따르면, **텍사스주 밀 경작지의 30% 이상이 황폐화**되면서 약 30억 달러의 농작물 손실을 가져왔고, 이로 인해 국제 사회는 밀 공급 부족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함.
 - 이에 지난달 USDA는 텍사스의 254개 지역을 연방 구호가 필요한 자연재해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함.
- **오클라호마주의 강수량도 여름철 평년 강수량의 28% 수준에 불과하며,** 지난 한달 동안 평균 기온은 32℃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.
- 기상 전문가인 데이비드 미스커스(David Miskus)는 금번 **가뭄 피해가 강한 라니냐(La Nina) 현상으로 인해 남부의 수분 파이프 라인이 차단된 것에 기인**한다고 설명함.

- 통상적으로 봄철과 여름철 기상 뉴스는 홍수와 태풍 소식이 주를 이루었는데, 현재 **미국 전체 면적의 25%가 겪고 있는 고온과 가뭄**은 과거 이 시기에 예상할 수 없었던 자연 재해임.
- 이처럼 위험한 기상 패턴은 여름철 건조 지역에서 예상되는 기상 상황(남동부 지방의 열대 태풍 및 남서 지역의 장맛비)과 대치되는 현상이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설명함.
- 한편, 미국 가뭄 피해경감본부(The 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: NDMC)의 전직 이사인 도널드 윌하이트(Donald A. Willhite)는 현재의 상황이 경기침체와 가뭄 피해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던 **1930년대와 유사한 상황**이라며 우려를 나타냄.
 -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많은 국민들은 최악의 가뭄 사태를 대처할 만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.
 - 연방 정부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가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.
- 아이오와주립대 브루스 밥콕(Bruce A. Babcock) 교수는 사료 작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**가격 상승으로 미국 축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함.** 또한 관개에 의존하는 곡물 재배농가들은 **물 조달 등 경영비 상승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함.**
 - 현재 높은 사료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농장 경영주들이 도축수를 늘려 축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지만, 이는 일시적이며 사료 작물 생산량 감소는 결국 축산물 공급 부족을 야기할 것임.
 - 예컨대, 가뭄 피해 지역의 어떤 곡물 재배농가는 5~6월 동안 물 조달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무려 8만 8,442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이에 USDA는 플로리다, 뉴멕시코, 텍사스 주 등 가뭄 피해 지역의 축산농가들에게 7,500만 달러를 지원함. 또한 곡물 재해 보상금으로 6,200만 달러도 추가적으로 지원한 상태임.